

‘광주정신’의 가치를 알린다... ‘마당’의 공동체성을 공유한다

베니스에서 세계와 공유하는 광주정신 그리고 ‘마당’의 공동체성.

올해로 창설 30돌을 기념하는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특별전이 베니스 현지에서 18일 개막식을 갖고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시장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 자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에 마련됐다.

민주, 인권, 평화 등 광주정신의 공동체성을 모티브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마당-우리가 되는 곳’. 오는 11월 24일까지 장장 221일간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은 광주정신과 그 가치를 알리고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 가을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압축한 비디오 에세이 ‘판소리로부터 배우다’가 19일부터 전시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이번 특별전은 30돌 된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는 물론 차별화된 방향성, 광주정신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0년이라는 한 세대에 걸친 시간을 통해 축적된 광주비엔날레만의 가치와 다양성 등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 확산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 ‘마당’은 우리말로 ‘옴이 되는 공간’이라는 다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마당’은 기본적으로 광주비엔날레 30년 역사가 세계미술인들 담론의 장이자 다양한 화두가 교류되는 창의적 토대였음을 전제한다. 나아가 광주 정신을 매개로 광주비엔날레의 동시대적 가치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산해나가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전시는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연대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나온 발자취를 개괄하는 한편 변화를 보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특별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11월24일까지 광주비엔날레 30년 역사·활동 조명

여준다. 역대 전시 포스터를 포함해 예술 감독 및 큐레이토리얼 팀, 전시 주제, 참여 작가 목록, 전시장소를 표기한 지도 등을 만난다.

다큐멘터리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시선’은 기존 기획자와 작가를 인터뷰로 구성했으며 그동안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본다.

광주비엔날레 소장품을 매개로 의미를 짚어보는 공간도 있다.

두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소장품과 더불어 3명의 한국 여성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백남준의 ‘고인돌’ (1995)과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1995) 두 작품 외에도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한 가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고인돌’은 거석 형태로 쌓인 TV와 장독과 같은 오브제를 병치해 구현한 작품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명하고 공동체성을 부각한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쿠바의 보트 난민의 삶을 상징한다. 뗏목, 타이어, 낡은 배 등 사물은 난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환기한다.

또 지난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는 김실비, 김아영, 전소정 세 명의 여성 작가는 영상매체 작품을 매개로 독창적이며 재창안의 의미를 구현했다. 김실비 작가의 ‘빛지 않는 삶’은 소수자들에게 빛을



지난 20일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한 가운데 이에 앞서 지난 18일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특별전이 현지에서 개막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비추고 있으며, 김아영 작가의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랫폼’은 데이터의 이주와 난민의 이주를 병치해 이주를 이야기한다. 전소정 작가는 ‘망인들의 배’를 모티브로 이주와 난민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광주정신의 은유적 사물인 ‘양은 함지박’도 눈길을 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담았던 함지박은 전체 주제와 맞물리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공간은 아카이브 섹션. 광주비엔날레 소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시 포스터를 비롯해 티켓, 리플릿, VHS, CD, 전시 도면 등 실물 자료와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 등이 관객들을 맞는다.

한편 18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인 니콜라 부리오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크초 작 ‘잊어버리기 위하여’ (제1회 광주비엔날레 대상작)

세계 ‘미술 올림픽’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광주비엔날레 참여 마타아호 컬렉티브,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세계 ‘미술 올림픽’으로 여겨지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오는 11월 24일까지 7개월간 펼쳐지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세계적인 비엔날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주제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 이민자, 난민 등 비주류 작가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술감독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 또한 미술계 변방 브라질 출신으로 알려

져 있다. 본전시에는 한국 작가 김윤신(아르헨티나)과 이강승(미국 LA) 및 작고 화가 이쾌대, 장우성 등 4명이 초청됐다. 국가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특별전에도 지난 18일 개막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예술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역대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작가 36명(팀)의 작업을 엄선해 한국 동시대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모든 섬은 산이다’를 주제로 과거-현재-미래, 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마타아호 컬렉티브 작품. <광주일보 자료>

인과 공동체, 로컬과 글로벌,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예술적 사유와 실천에 주목했다. 예술

위 산하 아라코미술관(관장 임근혜)이 기획했다. 예술위는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작가 36명(팀)의

작업을 엄선해 한국 동시대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며 “전시 작품은 1995년 개관 당시 선보인 작품 및 최근의 신작을 포함한 총 82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마오리족의 전통 직조 기술을 동시대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마타아호 컬렉티브가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 참여한 마타아호 컬렉티브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베니스에서 전했다.

네 명의 마오리 여성들로 구성된 협업 공동체인 마타아호 컬렉티브는 2012년에 레지던시를 통해 처음 만난 작가들의 결성체로, 선조들이 사용했던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이후 멤버들은 섬유를 토대로 한 대규모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중소규모 콘텐츠’ 국비사업 3개 작품 선정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요성)은 올해 우수공연초청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2024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국비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총 3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은 문화 취약지역에 문화 향유 증진 및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이다.

선정된 3개 작품은 (사)세종술로이스츠 단체의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관현악), 극단수수파 보리 단체의 ‘통속소설이 뭐 어때서?!’ (연극), 에이엠(A.M) 예술기획의 ‘비루투오소의 조우(漕遇)’ (실내악) 등이다.

선정된 공연단체에게는 문화재단 지원금 1800만원과 국비 지원금 93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이 지원된다. 3개 작품은 오는 8월 17일, 24일, 31일 3차례에 걸쳐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을 찾아간다.



‘극단 갯돌’ 가요극 ‘어게인(Again)’ <광주문화재단 제공>

우수공연초청기획 사업의 공연은 유료(티켓 1만원)로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은 공연팀에 전달된다. 광주문화재단은 관객의 10% 내외 좌석을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초대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서 ‘산중호걸 호랑님의 생일잔치’ 열린다

5월4~5일 전통연희단 예음회 초청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종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숲속의 왕 ‘호랑님’은 생일을 맞아 동물 재주꾼을 초대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고 싶어한다. ‘예뻐’와 ‘강종이’는 호랑님을 즐겁게 할 친구들을 찾아 나서지만, 뛰어난 재주가 있는 동물들은 부족한 면도 가지고 있어 누구 섭외할지 고민이 된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느린 ‘잔잔이(거북이)’, 시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꽃분이(황새)’, 말하는 것을 꺼리는 ‘꼬양 밴드(닭·양)’ 등을 만나며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 3과연 ‘호랑님의 생일잔치’는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전통연희단 ‘예음회’를 초청, 전통연희극 ‘산중호걸 호랑님의 생일잔치’를 5월 4~5일(오후 8시) 국악원 전야당

에서 선보인다. 어린이날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판굿’부터 LED 조명(안경)을 곁들인 ‘장단놀이’, 호랑이춤 ‘탈놀이’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공연은 전통연희 판굿 ‘운우풍뢰(雲雨風雷)’로 막을 연다. 관객에게 전통 연희 무대를 보여주고 퀴즈 형식을 곁들여 사물악기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화려한 LED 조명과 장단에 맞춰 빠르게 장구를 연주하는 ‘잔잔이 만남’ 대목도 있다. ‘꽃분이를 만나는 대목’에서는 팽과리 속주, ‘꼬양 밴드 만남’ 대목에서는 밸리스트(균형잡기) 및 13개의 스틱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호랑님의 생일잔치’ 코너에서는 호랑이 탈을 쓰고 다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마련된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호랑이 탈을 써보거나 ‘바나놀이’, ‘소고 놀음’,



전통연희극 ‘산중호걸 호랑님의 생일잔치’ 중 거북이 ‘잔잔이’가 연기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열두발 재주’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준비돼 있다”며 “존재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역설하는 이번 공연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